

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⑤	③	⑤	③
6	7	8	9	10
②	④	②	④	⑤
11	12	13	14	15
②	②	⑤	⑤	⑤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③	⑤
21	22	23	24	25
④	③	①	①	④
26	27	28	29	30
②	④	⑤	③	④
31	32	33	34	35
①	④	②	④	②
36	37	38	39	40
①	①	③	④	③
41	42	43	44	45
④	④	⑤	②	③
46	47	48	49	50
①	②	①	⑤	⑤

<1번 오답 해설>

- ①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벼 이삭을]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반달 돌칼은 생김새가 대체로 한쪽이 곧고 다른 한쪽이 둥근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식의 낱알을 거두어들이는 데[이삭을 따는 데] 쓰인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수확 도구]이다.
- ②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⑤ 주먹도끼, 찌개 등의 뿔석기를 처음 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구석기인들은 여러 종류의 뿔석기를 제작하였고 사냥을 하거나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초대합니다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 이야기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의 유물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 시대를 주제로 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 대표 전시 유물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로 짧은 사선 무늬, 생선뼈무늬 등이 잘 드러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가) 시대에 식량의 저장과 조리를 위해 이와 같은 토기가 제작되었습니다.

■ 기간: 2024.00.00.~00.00.
■ 장소: △△ 박물관 특별 전시실

- ①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③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⑤ 주먹도끼, 찌개 등의 뿔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정답> ③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의 유물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 시대를 주제로 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표 전시 유물에서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로 짧은 사선 무늬, 생선뼈무늬 등이 잘 드러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가) 시대에 식량의 저장과 조리를 위해 이와 같은 토기가 제작되었습니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시대'는 신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2 - 신라 진흥왕의 업적

2.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③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④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⑤ 대아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정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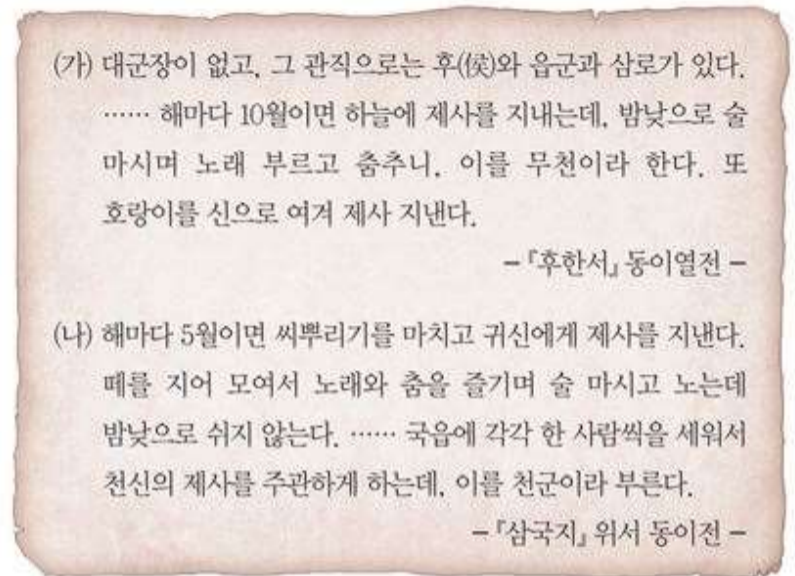
왼쪽 말풍선에 '이 비석은 원래 도선국사비, 무학대사비 등으로 알려져 있었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맞아. 그런데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금석과안록에서 이 왕이 건립한 순수비임을 고증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것은 조선 철종 3년인 1852년의 일이다. 그리고 북한산에 순수비가 세워진 것은 신라 진흥왕 16년인 555년의 일이다. 대아찬 거칠부(502~579)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한 것은 신라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 ②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것은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
- ③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 ④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문무왕 13년인 673년의 일이다. 외사정은 행정 통제와 관리 감찰을 위해 설치한 외관직으로, 근무지는 지방[9주]이었지만 주·군의 장관 밑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의 감찰 기구인 사정부 소속의 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3 - 초기 국가, 동예와 삼한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가. (가) -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나. (가) - 음악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다. (나)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리. (나)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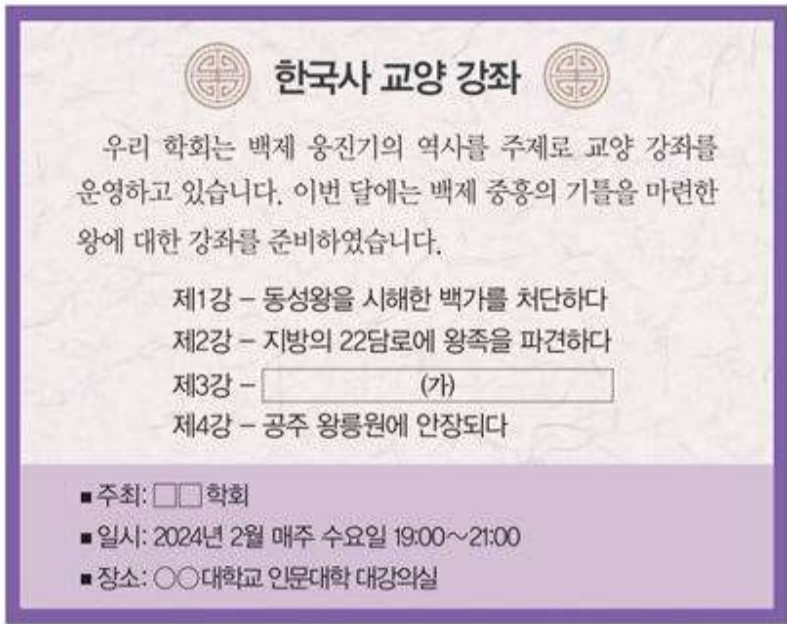
(가)에 '대군장이 없고, 그 관직으로 후(侯)와 읍군과 삼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후, 읍군, 삼로', '무천'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에는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해마다 5월, 제사, 천신의 제사', '천군'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가.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동예가 아니다.
- 나. 음악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옳은 설명이다.
- 다.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옳은 설명이다.
- 리.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삼한이 아니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나'와 '다'이다.

04 - 백제 무령왕

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다
- ②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다
- ③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다
- ④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다
- ⑤ 사신을 보내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다

정답> ⑤

'한국사 교양 강좌'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회는 백제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강 -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를 차단하다', '제2강 -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다', '제3강 (가)', '제4강 '공주 왕릉원에 안장되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동성왕(재위 479-501, 제24대)을 시해한 백제 귀족 백가(伯加. ~?)를 차단한 이는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재위 501-523)이다. 웅진 시대는 개로왕이 전사한 후 문주왕(재위 475-477, 제22대)은 '웅진 천도'를 단행한 때로부터 성왕이 재위 16년인 538년에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옮긴 때까지의 기간이다(475~538).

무령왕은 사신을 보내 중국 남조의 양(梁)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양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관직을 받음).

오답 해설>

- ① 금마저(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은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 40년인 639년에 조성되었다.
- ②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게 한 백제의 왕은 제31대 왕인 의자왕(재위 641-660)이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 ③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은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371, 근초고왕 26).
- ④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한 백제의 왕은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이다(551, 성왕 29). 하지만 553년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빼앗기자 보복하기 위해 싸우다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북병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554, 성왕 32).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으로,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05 - 연개소문의 정변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이르기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이미 공로가 드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라고 하였다.

(나) 안시성 사람들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곧장 성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는 날에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이를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오래도록 공격하여도 함락되지 않았다.

- ①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 ②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 ③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⑤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③

(가)에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이르기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이미 공로가 드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우중문(545~613)의 30여만 군대를 물리친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제2차 여수 전쟁).

(나)에는 '안시성 사람들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곧장 성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는 날에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이를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오래도록 공격하여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와 당 사이에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고구려 보장왕 4년인 645년의 일이다.

(동부대인 대대로) 연개소문(?~665)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은 642년의 일이다(영류왕을 죽이고 왕의 동생인 보장왕을 내세움).

오답 해설>

- ①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255)이 (고구려의 도읍인)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한 것은 고구려 동천왕 18년인 244년의 일이다[동천왕(재위 227-248), 제11대]. 환도성은 평지성인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포곡식 산성으로, 오늘날 산성자 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환도성: 209년(산상왕 13)에서 427년(장수왕 15)까지 고구려의 수도
- ② 백제의 계백(?~660)이 이끄는 군대[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에 항전한 것은 660년(백제 의자왕 20/신라 태종 무열왕 7) 7월의 일이다.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 지역이다.
- ④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물마립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것은 경자년, 즉 고구려 영락 10년인 400년의 일이다(고구려 광개토 대왕 10/신라 내물마립간 45).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병하였다.
- ⑤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재위 14년인 313년의 일이다. 2년 전인 311년(미천왕 12)에 (압록강 하류 지역) 서안평을 점령하였으며, 이듬해인 314년(미천왕 15)에는 대방군까지 정벌하였다.

06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 ②
 '문화유산 발표 대회'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토되어 1964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천불(千佛) 중 하나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광배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로 추정되는 연가(延嘉)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임을 알 수 있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국보 제 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시대의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78m, 광배 높이 3.8m이다.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국보 제45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이다.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전해진다.
 ③ 통일 신라의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 좌상이다(국보 제79호). 국보 제 80호로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 입상도 있다. 경주 황복사지 삼층 석탑(국보 제37호) 해체 수리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사리함 속). 금제 여래 좌상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것으로 불상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나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따로 주조하여 결합시킨 것이다. 8세기 초 통일 신라 시대 불상 양식을 잘 보여 준대[성덕왕 4년(706)으로 추정].
 **심화 제52회 6번(좌상), 57회 4번(입상) 출제

<24쪽 45번 아래 추가 해설>

07 - 삼국 통일 전쟁

7.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나)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였다. ……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다) 검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 ④
 (가)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사찬 시득(?~?)이 이끄는 신라군이 당의 설인귀(613~683) 군대와 싸운 기벌포 전투 [해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676.11, 신라 문무왕 16). 기벌포는 지금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가리키며, 금강 하구에 해당한다 (백제 사비성을 지키는 관문이기도 함).
 (나)에는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였다. ……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달솔) 흑치상지(630?~689)가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60년 8월 백제 멸망 직후의 일이다(660.8~663.8). 임존성(오늘날 충남 예산 대흥)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고, 당군을 격퇴하면서 2백여 성을 회복하였다[의자왕의 사촌 동생인 복신(?~663)과 승려 도침(?~661)은 주류성을 근거로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킴]. 이후 당의 회유에 의해 별부장 사타상여와 함께 당에 투항하였다.
 (다)에는 '검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형) 검모잠(?~670)이 [한성(황해도 재령)을 근거지로 삼아]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70년 4월의 일이다. 보장왕의 외손자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하였는데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다 안승에게 피살되었다(670년 6월 전후로 추정).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08 - 통일 신라의 경제 상황

8.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었다.
- ②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 ③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 ④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현하였다.
- ⑤ 감자, 고구마 등을 구황 작물로 재배하였다.

정답> ②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것으로, (가)의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주변 촌락을 포함한 4개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신라 촌락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 국가'는 통일 신라임을 알 수 있다. 통일 신라는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신라 촌락 문서는 지금의 충북 청주 부근인 서원경의 4개 촌을 대상으로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작성된 시기로는 755년설(경덕왕 14), 816년설(헌덕왕 8), 876년설(헌강왕 6) 등 여러 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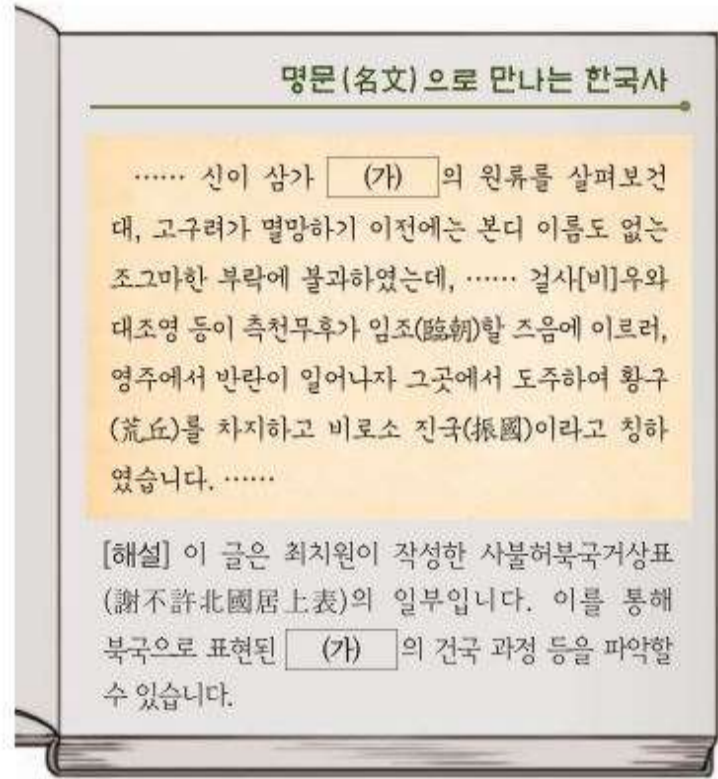
수도에 서시[서시전]와 남시[남시전]를 설치한 것은 효소왕 4년인 695년의 일이다. 참고로 지증왕 10년인 509년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①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둔 것은 조선 태종 6년인 1406년의 일이다. 여진족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여진족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여진에게 국경 무역과 조공 무역 허락).
- ③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한 것은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주전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
- ④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都庫)가 출현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감자, 고구마 등을 구황 작물로 재배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09 - 발해

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사암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② 지방의 여러 성에 옥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 ③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④ 서적 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 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정답> ④

'명문(名文)으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 신이 삼가 (가)의 원류를 살펴보건대,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본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부락에 불과하였는데, 걸사[비]우와 대조영 등이 측천무후가 임조(臨朝)할 즈음에 이르러, 영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도주하여 황구(荒丘)를 차지하고 비로소 진국(振國)이라고 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설에 '이 글은 최치원이 작성한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북국으로 표현된 (가)의 건국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최치원(857~?)이 당 황제에게 올린 표문은 제목 그대로 '북국이 (신라의) 뒷자리에 앉게 해달란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문'이라는 뜻으로(897, 효공왕 원년)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이전까지 당은 발해를 처음에 말갈국이라고 불렀고, 신라도 발해 말갈 혹은 말갈이라고 부름). 참고로 자료 속 '황구'는 만주를 가리킨다.

발해는 서적 관리, 비문·묘지·제문·외교 문서 등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오답 해설>

- ① 정사암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 요컨대 재상 선출과 관련 사안을 결정한 국가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② 지방의 여러 성에 옥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둔 국가는 고구려이다. 『신당서』에 고구려에는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있다. 대성의 장관이 '녹살'로 되어있는데 이는 '옥살(褥薩·褥薩·辱薩)'을 가리킨다.

<24쪽 45번 아래 추가 해설>

10 - 고려 태조 왕건

10.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②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③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⑤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정답> ⑤

'이 불상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 삼존 입상으로, 큼직한 손과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원통형의 형태가 특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가)이/가 이를 기념하여 세운 사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논산 개태사(開泰寺)는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 신검의 후백제를 제압하고 세운 사찰이다(936, 태조 19).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긴 것은 태조 26년인 943년의 일이다. 후대 임금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일종의 유언으로 제시한 것으로, 신서 10조(信書十條), 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관학 진흥책). 참고로 예종은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도 두어 운영하였다(1109, 예종 4).
- ② [중국 후주(951-960)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 ③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 ④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이다(시정 전시과).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다시 경정 전시과(전시과의 완성)가 시행되었다.

11 - 서경[평양]에서 있었던 사실

11.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시 기	내 용	원문이미지
광종 11년	서도라 고쳐 부르다	원문이미지
목종 원년	호경으로 개칭하다	원문이미지
명종 4년	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키다	원문이미지
원종 11년	동녕부가 설치되다	원문이미지

- ①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 ②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 ③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 ④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⑤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 가요를 지었다.

정답> ②

광종 11년(960)에 '서도라 고쳐 부르다'는 내용이, 목종 원년(998)에는 '호경으로 개칭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명종 4년(1174)에는 '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키다'는 내용이, 원종 11년(1270)에는 '동녕부가 설치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검색창에 들어갈 지역은 '서경(평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묘청(?~1135)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묘청의 난)(서경 천도 운동). 이때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은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포은 정몽주(1337~1392)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1367~1418)(이후 태종) 세력에게 피살된 곳은 개경의 선죽교이다(1392.3, 고려 공양왕 4).
- ③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된 곳은 경주이다(1238, 고려 고종 25)(몽골의 제3차 침입 시).
- ④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된 흥덕사가 위치한 지역은 충북 청주이다(1377, 고려 우왕 3).
- ⑤ 고려의 문신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鄭瓜亭)이라는 고려 가요를 지은 곳은 동래[부산]이다. 고려 가요 가운데 작가가 확실한 유일한 노래지만, 지은 연대는 고려 의종 5~24년(1151~1170), 의종 5~11년(1151~1157), 의종 20년 이후(1166~?), 의종 24년(1170) 9~10월 등 여러 설이 있다. 정서는 인종(재위 1122-1146, 제17대)의 왕비인 공예 태후(1109~1183) 동생의 남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의종 5년인 1151년에 참소를 받아 동래로 유배되었다. 곧 소환하겠다는 왕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자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명종 즉위년인 1170년에 유배에서 풀려남).

12 - 고려의 경제 상황

12.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이때에 은병을 화폐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며 본국의 지형을 본뜨도록 하였다. 속칭 활구라 하였다.

○ 도평의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지금부터 은병 하나를 쌀로 환산하여 개경에서는 15~16석, 지방에서는 18~19석의 비율로 하되, 경시서에서 그 해의 풍흉을 살펴 그 값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솔빈부의 말을 특산물로 수출하였다.
- ②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 ③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 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정답> ②

위의 자료에 '이때에 은병을 화폐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며 본국의 지형을 본뜨도록 하였다. 속칭 활구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주어진 사료는 숙종 6년인 1101년 4월의 기사이다(『고려사』). 아래의 자료에는 '도평의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지금부터 은병 하나를 쌀로 환산하여 개경에서는 15~16석, 지방에서는 18~19석의 비율로 하되, 경시서에서 그 해의 풍흉을 살펴 그 값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도평의사사', '은병', '개경', '경시서'라는 용어 등에서 고려 시대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사료는 고려 충렬왕 8년인 1282년 6월의 기사이다(『고려사』).

개경, 서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약점과 주점 등도 운영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솔빈부의 말을 특산물로 수출한 국가는 남북국 시대의 발해이다(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
- ③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왕 장보고(?~846)가 해상 무역을 전개한 것도 남북국 시대의 신라시대(청해진 설치 시기, 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④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德大)가 활동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한 것은 조선 광해군 원년인 1609년의 일이다. 광해군은 에도 막부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부산에 왜관 설치).

13 - 윤관의 동북 9성 설치

13.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변방의 장수가 보고하기를, “(가)이/가 매우 사나워 변방의 성을 침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정하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지추밀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었고 지금 또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을 통솔하여 (가)의 보루를 깨뜨리고 우리의 강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수치를 씻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①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②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③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④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
- ⑤ 동북 9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정답> ⑤

'변방의 장수가 보고하기를. (가)이/가 매우 사나워 변방의 성을 침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정하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지추밀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었고 지금 또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을 통솔하여 (가)의 보루를 깨뜨리고 우리의 강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수치를 씻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과 '오연총'이라는 인물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윤관의 여진 정벌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자료는 예종 2년인 1107년 윤10월의 기사로(『고려사』), 윤관(1040~1111)이 (17만의)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기 직전의 사실이다(여진 정벌 후 동북 9성을 설치하였지만 이후 1109년에 조공을 약속한 여진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북 9성 반환). 원사료에서 '(가)'는 '적(賊)'으로, 이는 곧 동북 방면의 여진(족)을 가리킨다.

고려는 동북 9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상술하자면 윤관이 예종 3년인 1108년 2월에 여진에 대한 2차 정벌 후에 공험진을 축성하고(동북 9성 중 하나로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공험진의 선춘령에 경계비, 즉 '고려지경(고려의 땅)'이란 글을 새긴 선춘령비(先春嶺碑)를 세웠다. 선춘령비는 고려 정계비(高麗定界碑) 혹은 윤관비, 윤관 정계비라고도 하는데, 공험진과 선춘령비의 위치에 대해 함흥평야설, 길주설, 두만강 일대설 등 여러 가지 학설들로 현재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오답 해설>

- ①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고려 정종 2년인 947년의 일이다.
- ② 무신 박위(?~1398)를 파견하여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고려 말인 창왕 원년인 1389년의 일이다. 참고로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세종 원년인 1419년에도 무신 이종무(1360~1425)에 의해 토벌되었다.
- ③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강화도 천도).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우(집권 1219-1249)가 주도하였다.
- ④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한 것은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의 일이다. 이른바 거란을 배척한 만부교 사건*이다.
*만부교 사건: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필을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어 죽게 한 사건이다.

14 -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반란

14.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였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 원울 사람인 이연년이 백적도원수라 자칭하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여러 주군을 공격하여 노략질하니 최린이 지휘사 김경손과 함께 그들을 격파하였다.

- ① 노비안검법이 실시된 목적을 알아본다.
- ②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과정을 살펴본다.
- ③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사례를 조사한다.
- ④ 집강소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⑤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반란이 발생한 배경을 파악한다.

정답> ⑤

위의 자료에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였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도의 운문, 즉 지금의 경북 청도와 초전, 즉 지금의 울산을 중심으로 김사미(?~1194)와 효심(?~?)의 난이 일어난 것은 고려 명종 23년인 1193년의 일이다(김사미·효심의 난).

아래의 자료에는 '원울 사람인 이연년이 백적도원수라 자칭하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여러 주군을 공격하여 노략질하니 최린이 지휘사 김경손과 함께 그들을 격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울은 지금의 전남 담양 지역으로 이연년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것은 고종 24년인 1237년의 일이다(몽골의 제3차 침입 시기, 1235~1239). 백제 부흥을 내세워 '백적(百賊)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김사미·효심의 난과 이연년 형제의 난은 모두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하층민의 반란에 속한다.

오답 해설>

①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노비안검법은 양민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② 진주 농민 봉기 발생 후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환재 박규수(1807~1877)가 안핵사*로 파견되었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1862년(철종 13) 5월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안핵사(按覈使): 조선 후기 지방에서 민란이나 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의 처리[수습]를 위해 파견된 임시 직책이다. 목사, 군수 등 인근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중앙의 관리인 경관(京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안핵사는 사건의 원인과 진행 등의 전말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또, 사건의 처리 방안을 건의하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려 하였다. 사실 안핵사가 파견된다 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으므로 관리들은 임명을 꺼려하였다. 또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안핵사가 파견되었던 것도 아니다.

③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 제56대, 김부)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면서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이다(935, 고려 태조 18). 사심관이란 지방에 연고가 있는 중앙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정확하게는 감독하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으로 지방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여한 것이다.

15 - 조일신의 난

15.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천기 등과 함께 기철·기륜·기원·고용보 등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고 그들을 체포하게 하였는데, 기원은 잡아서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다. 조일신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왕이 있던 궁궐을 포위하고, 숙직하고 있던 판밀직사사 최덕림, 상호군 정환 등 여러 사람을 죽였다.

918	1009	1126	1198	1270	1392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강조의 정변	이자겸의 난	만적의 난	개경 환도	고려 멸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천기 등과 함께 기철·기륜·기원·고용보 등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고 그들을 체포하게 하였는데, 기원은 잡아서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일신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왕이 있던 궁궐을 포위하고, 숙직하고 있던 판밀직사사 최덕림, 상호군 정환 등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요컨대 조일신(?~1352)이 당여를 모아 기씨 일족을 공격한 내용이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세자 때 원에서 시종한 인물로 공민왕이 즉위하자 1등 공신에 책록되었는데,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충신들은 물론 친원 세력들까지도 마구 살해하다 참살된 역신이다(충선왕 때의 공신인 조인규의 손자이자 충숙왕 때 찬성사를 지낸 조위의 아들). 주어진 자료는 공민왕 원년인 1352년 9월(음)의 기사이다(『고려사절요』).

연표에서는 1270년 개경 환도와 1392년의 고려 멸망 사이의 시기인 '(마) 시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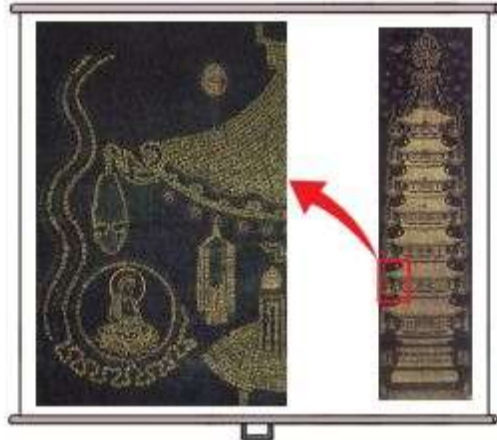
<14번 오답 해설>

④ (일종의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한 것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일이다(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난 시기). 1894년 7월에 제1차 봉기 주동자인 전봉준(1855~1895)과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1838~1917) 사이에 집강소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호남 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되었다(호남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군현에도 설치되었다는 학설 있음).

16 - 고려의 문화유산

16. 밑줄 그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것은 왕실의 종친인 신안공 왕전이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며 발원한 법화경서탑도(法華經書塔圖)입니다. 감색 종이에 금가루 등으로 법화경 수만 자를 한 자씩 써서 칠층 보탑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답 > ①

'이것은 왕실의 종친인 신안공 왕전이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며 발원한 법화경서탑도(法華經書塔圖)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감색 종이에 금가루 등으로 법화경 수만 자를 한 자씩 써서 칠층 보탑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라는 부분에서 밑줄 그은 '국가'는 대몽 항쟁을 벌였던 고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법화경서탑도(法華經書塔圖)는 법화경서사보탑도(法華經書寫寶塔圖)라고도 하는데 신안공 왕전(?~1261)이 왕의 장수와 국가의 태평, 백성의 편안함을 기원하며 고종 36년인 1249년에 발원한 사경변상도*이다(일본 교오고쿠지 소장).

선지 ①은 삼국 시대 백제의 금동 대향로이다(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껍 꼭대기에는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껍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 하얀종이[白紙]나 감색으로 물들인 종이[紺紙], 비단 등에 먹이나 금은니(金銀泥)를 사용하여 경전을 필사한 것을 사경(寫經)이라 하며, 이 사경의 권(卷) 머리에 경전 내용과 교리를 함축하여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

②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이다.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고려 광종 대),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에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은진 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4쪽 45번 아래 추가 해설>

17 - 삼별초의 난 진압

1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살리타가 이첩(移牒)하기를,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여를 죽인 이유 등 몇 가지 일을 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 2만 필, 어린 남녀 수천 명, 자주색 비단 1만 필, 수달피 1만 장과 군사의 의복을 요구하였다.

(나) 첨의부에서 아뢰기를, "제국 대장 공주의 겁령구*와 내료(內僚)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패(賜牌)**를 받아 조세를 납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라고 하였다.

*겁령구: 시종인

**사패: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증서

- ① 신승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② 최승로가 왕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다.
- ③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 ④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 ⑤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 ③

(가)에 '살리타가 이첩(移牒)하기를,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여를 죽인 이유 등 몇 가지 일을 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 2만 필, 어린 남녀 수천 명, 자주색 비단 1만 필, 수달피 1만 장과 군사의 의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살리타(?~1232)가 몽골 사신 저고여(?~1225)의 피살을 구실로 고려를 침공한 것은 고종 18년인 1231년 8월(음력)의 일이다(몽골의 제1차 침략)(~1232.3).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 정월의 일이다(동하(국)의 포선만노가 저지른 일로 추정). 주어진 자료는 고종 18년인 1231년 12월(음)의 기사이다(『고려사』).

(나)에는 '첨의부에서 아뢰기를, 제국 대장 공주의 겁령구*와 내료(內僚)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패(賜牌)**를 받아 조세를 납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첨의부는 원 간섭기 최고의 정무 기구로, 종래의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한 것이다(관제 격하(2성 6부 → 1부 4사), 1275(충렬왕 원년)). 또 제국 대장 공주(1259~1297)는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 제25대)의 제1 왕비로 몽골인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는 원 간섭기***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자료는 충렬왕 3년인 1277년 2월(음)의 기사이다(『고려사』).

고려의 무신 김방경(1212~1300)의 군대가 탐라(제주도)에서 (원군과 함께) 삼별초****를 최종 진압한 것은 원종 14년인 1273년 6월의 일이다. 김방경은 삼별초가 처음 난을 일으켰을 때부터 토벌의 임무를 맡았다.

*겁령구: 시종인

**사패: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증서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별초가 (전남)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항전한 것은 1270년(고려 원종 11)에서 1271년(원종 12)의 일이다(1270.6~1271.5, 진도 삼별초)배중손(?~1271)이 지휘). 이후 삼별초는 제주도로 건너가 1271년(원종 12) 5월에서 1273년(원종 14) 6월까지 김통정(?~1273)의 지휘로 몽골에 계속 항전하였다(항파두리성).

<25쪽 48번 아래 추가 해설>

18 - 최영의 활동

18.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팔도도통사로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던 (가)의 초상입니다. 그는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①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 ②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 ③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였다.
- ④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⑤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이것은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팔도도통사로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던 (가)의 초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고려의 명장이자 충신, 최영(1316~138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최영이 (충청도) 홍산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은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 7월의 일이다(홍산 대첩). 홍산은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이다.

오답 해설>

②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한 인물은 고려의 무인이자 발명가인 최무선(1325~1395)이다(1377, 우왕 3).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로 진포 대첩(해전)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1380.8, 고려 우왕 6).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③ 정변을 일으켜 목종(재위 997-1009, 제7대)을 폐위한 인물은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이다(1009, 목종 12). 강조의 정변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④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킨 인물은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1173)이다. 김보당은 명종 3년인 1173년에 의종 복위를 주장하면서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김보당의 난).

⑤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한 인물은 최충헌(1149~1219, 집권 1196-1219)이다. 최충헌은 청교역 암살 모의 사건*을 빌미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그 장(長)인 교정별감이 되었다(1209, 고려 희종 5).

*청교역(靑郊驛) 암살 모의 사건: 청교역 관리(서리 3인)이 최씨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최충헌은 이를 빌미로 개경의 영은관에 교정별감을 두고 혐의자들을 색출하였다. 청교역은 당시 개성부 나성의 동쪽 방면 문인 보정문 밖에 위치한 역이다.

19 - 균역법

19. 밑줄 그은 '대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양역(良役)의 편중됨이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이 됩니다.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 2필의 역을 특별히 1필로 감하였으니, 이는 천지와 같은 큰 은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 주는 은혜입니다. …… 그러나 이미 포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그 대신할 것을 보충해야 하나 나라의 재원은 한정입니다. …… 이에 신들은 감히 눈앞의 한때 일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대책을 찾아 반드시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 ①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 ②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③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 ④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을 조사한다.
- ⑤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를 알아본다.

정답> ③

'양역(良役)의 편중됨이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이 됩니다.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 2필의 역을 특별히 1필로 감하였으니, 이는 천지와 같은 큰 은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은혜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포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그 대신할 것을 보충해야 하나 나라의 재원은 한정입니다. …… 이에 신들은 감히 눈앞의 한때 일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대책을 찾아 반드시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영조 26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매년 1필의 면포나 2냥을 바치게 함). 그 외 1결당 쌀 2두의 결작, 해세·어장세·선박세 등을 징수하였다.

오답 해설>

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1608)부터 시행된 대동법* 때문이다(~1708)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② 당백전은 경북궁 중건(1865~1868)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 고종 3년인 1866년에 발행되어 고종 4년인 1867년까지 유통되었다(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물가 폭등).

④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는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⑤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과세]한 것은 공법[연분9등법] 시행 시이다(1444, 세종 26).

20 - 사헌부

2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②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③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 ④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 ⑤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라는 제목 아래 '총마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총마는 감찰의 별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감찰은 대사헌을 수장으로 하는 (가)의 관원으로, 관리의 위법 사항을 규찰하였다. 그림에는 계획 장소의 모습과 함께 왕이 내린 시문, 참석자 명단 등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구인 사헌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자료인 총마계회도는 사헌부 감찰 24인의 계획도이다(1591, 선조 24). 일반 문인들의 계획도와는 달리 관청의 비공식적인 의례 모임을 계획도로 제작한 것이다.

사헌부는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3사)로 불렸으며,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②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은 승정원이다. 은대(銀臺),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언사(代言司) 등으로 불렸다(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로 칭함).
- ③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한 기구는 홍문관이다(1478, 성종 9). 홍문관은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삼사로 불렸으며,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다.
- ④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던 기구는 춘추관이다. 즉 춘추관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로 고려 개국 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고쳤고, 충숙왕 12년인 1325년에 예문관에서 갈라져 비로소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실록청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유의).

21 - 정암 조광조

2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성학집요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어요.
- ②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어요.
- ③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어요.
- ④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어요.
- 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어요.

정답> ④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곡 서원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 등 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사된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창에는 '호는 정암으로, 소격서 폐지에 앞장섰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기구로 조광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지된 바 있다(1518, 중종 13).

조광조는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특히 현량과는 사람들의 중용(청요직 임명)을 위해 건의한 것이다(1519, 중종 14).

오답 해설>

- ① 성학집요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친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이다(1575, 선조 8).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았다.
- ② 스승인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킨 인물은 그 제자인 김일손(1464~1498)이다.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 ③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풍기 군수 신재주세봉(1495~1554)이다(1543, 중종 38).
- 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태조 3).

22 - 조선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

22. 밑줄 그은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6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②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 ③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 ④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답> ③

맨왼쪽 말풍선에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 왕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동생 영창 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 대비를 폐위한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었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 외교 정책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선조의 13번째 왕자이자 인목 대비의 소생인 영창 대군(1606~1614)이 사사(賜死)*된 것은 광해군 6년인 1614년의 일이고, 인목 대비(1584~1632)가 (서궁에) 유폐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대북파가 영창 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계축옥사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1613. 광해군 5). 그런데 영창 대군은 사사*된 것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 이견이 있으나)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강화부사 정향이 굶겨 죽였거나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증살(蒸殺)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구암 허준(1539~1615)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하여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광해군 2년인 1610년의 일이고(선조 대부터 집필 시작).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내의원에서 간행하였다.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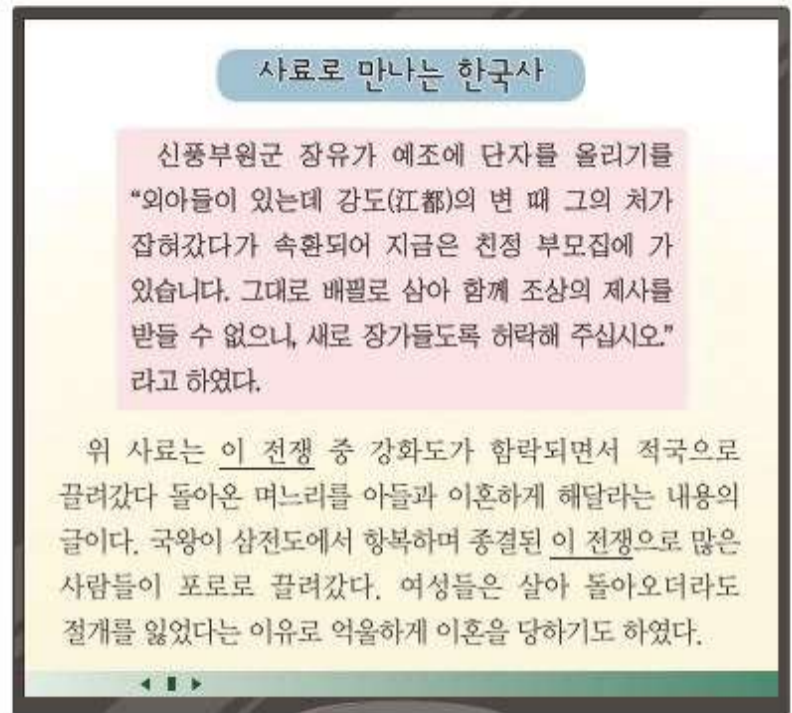
*사사(賜死):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는 것

오답 해설>

- ① 6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이후 세조 원년인 1455년에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다.
- ②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둔 것은 세종 2년인 1420년의 일이다. 이후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세조 2년인 1456년에 폐지되었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23 - 병자호란

23. 밑줄 그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 ②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 ③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④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 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①

'사료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신흥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단자를 올리기를, 외아들이 있는데 강도(江都)의 변 때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지금은 친정 부모집에 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위 사료는 이 전쟁 중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적국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아들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국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며 종결된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여성들은 살아 돌아오더라도 절개를 잃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전쟁'은 조선 인조 14년인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636.12~1637.1). 주어진 사료는 인조 16년인 1638년 3월 11일자 기사이다(『인조실록』).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된 것은 효종 대의 일이다. 즉 효종이 이완(1602~1674)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고 도성 안에 어영청을 두어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 부대로 양성하고자 하였다(1652, 효종 3).

*병자호란이 발생한 병자년 음력 12월 10일은 양력으로 1637년 1월 5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답 해설>

- ② 김종서(1383~1453)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대의 일이다(4군(1433, 세종 15)/6진(1434, 세종 16)). 4군은 최윤덕(1376~1445)에 의해 압록강 상류 지역에 개척되었고, 4군과 6진 모두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 ③ 무신 이종무(1360~1425)가 적[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참고로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되었는데 고려 말인 창왕 원년(1389)에 박위(?~1398)에 의해 토벌된 적도 있다.
 - ④ 5도 도원수 강홍립(1560~1627)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의 일이다.
-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 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

<25쪽 48번 아래 추가 해설>

24 - 조선 세조 시기의 사실

24.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만약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수신전이라 하였고, 부부가 모두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흘양전이라 일컬었으며,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제수된다면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 과전이라 하였다. (가) 이/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라 하였다.

- ①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 ②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 ③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 ④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 ⑤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정답> ①

'만일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수신전이라 하였고, 부부가 모두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흘양전이라 일컬었으며,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제수된다면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 과전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이/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을 실시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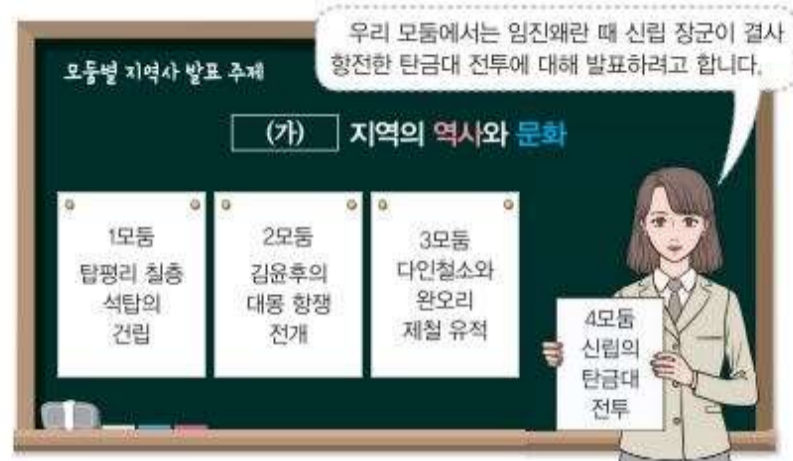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된 것은 세조 7년인 1461년의 일이다. 성종 2년인 1471년 폐지될 때까지 11년 동안 존속하면서 다수의 불경을 간행(언해하여 간행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 ③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것은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 ④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⑤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아)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한 농업 서적이며, 관찬(官撰)으로 간행되었다.

25 - 충북 충주의 역사와 문화

25.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명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 ③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 ④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 ⑤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다.

정답> ④

'(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 아래 '우리 모둠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결사 항전한 탄금대 전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참고로 1모둠에서는 '탐평리 칠층 석탑의 건립', 2모둠에서는 '김윤후의 대몽 항쟁 전개', 3모둠에서는 '다인철소와 완오리 제철 유적'이 제시되어 있다. 삼도도순변사 신립(1546~1592)이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탄금대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다(1594.4.26~28). 1~3모둠 역시 충북 충주와 관련된 사실들이다. 충주 탐평리 칠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석탑이며(796, 원성왕 12), 몽골의 제5차 침입 시에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가 있었다(1253, 고종 40). 이때 충주 다인철소 주민(천민)들이 충주성에서 김윤후와 함께 몽골군에 항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주 완오리 제철 유적은 조선 시대의 제철 관련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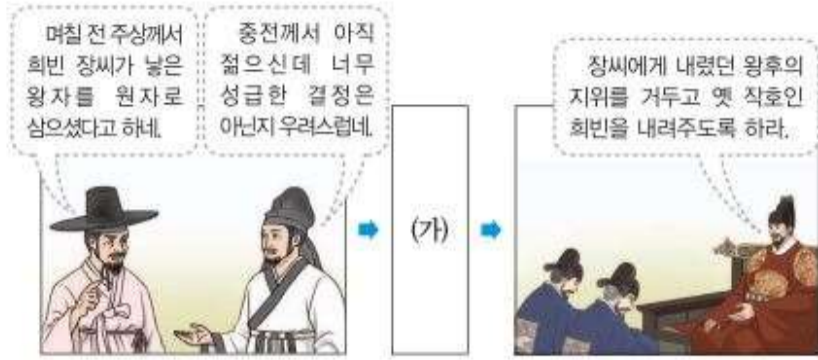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구려비는 충주(중원) 고구려비이다(449. 장수왕 37).

오답 해설>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 덕수궁 석조전이다(1946.3.20~1947.5.9).
- ② 명 신종 만력제(재위 1573~1620, 제13대)를 기리는 만동묘(萬東廟)가 건립된 곳은 충북 괴산이다(1704, 숙종 30). 정확한 지명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이다.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죽을 때 그의 제자 권상하(1641~1721)에게 유언하여 지은 것이다. 참고로 만동묘는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직후인 1865년(고종 2년) 5월에 철거되었다.
- ③ 일제 강점기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노동 운동가 강주룡(1901~1931)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곳은 평양이다. 즉 평양의 을밀대(평양의 고구려 시대 누정) 지붕에서 강주룡이 고공 시위를 전개하였다(1931.5.28). 지붕 위에서 무산자의 단결과 노동 생활의 참상을 호소하였다. 체포되어 평양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7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등 항의하다 결국 이듬해 서른한 살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다.
- ⑤ 의열단원 박재혁(1895~1921)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킨 곳은 부산이다(부산 경찰서, 1920.9.14).

26 - 기사환국

26.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② 송시열이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 ⑤ 봉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정답> ②

맨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주상께서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중전께서 아직 젊으신데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우려스럽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숙종이 궁녀 장옥정, 즉 장희빈(1659~1701)이 1688년(숙종 14) 왕자 윤(昀)(이후 경종)을 낳자 윤을 원자(元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삼으려 한 사실을 가리킨다. 하지만 서인은 정비(正妃)인 민씨가 아직 젊으므로 후사를 기다려 적자(嫡子)로써 왕위를 계승함이 옳다 하여 원자 책봉을 반대하였다(남인들은 숙종 지지). 이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현 왕후(1667~1701)가 복위하고 장희빈이 축출당하는 내용으로, 갑술환국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1694, 숙종 20).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곧 기사환국이다(1689, 숙종 15). 이때 노론[서인]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을 비롯한 서인이 축출당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송시열은 유배된 후 사사됨).

오답 해설>

- ① 무신이자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1453)이 (계유정난을 야기한 수양 대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단종 원년인 1453년의 일이다. 여진족에게도 군사를 요청하고 각지에 군사를 일으키라는 통문을 보냈는데, 토벌군이 출정하기도 전에 살해되었다. 이후 세조 13년인 1467년에 일어난 이시애의 난에도 영향을 끼쳤다.
- ③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조대비](1624~1688)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것은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의 일이다 [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1546~1589)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 ⑤ 봉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27 - 초정 박제가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세계 지리서인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③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④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 ⑤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정답> ④

'이것은 청의 화가 나빙이 그린 (가)의 초상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시가 함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연행사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청에 가서 그곳의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초정 박제가(1750~1805)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778, 정조 2).

박제가는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4검서' 중 한 사람이다.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된 것은 조선 정조 3년인 1779년의 일이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4)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오답 해설>

- ① 세계 지리서인 지구전요를 저술한 인물은 혜강 최한기(1803~1877)이다(1857, 철종 8). 이 책에서 최한기는 우주 현상과 지리, 문화 현상을 상술하였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였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 ②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과 지전설)을 주장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이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③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 ⑤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집필 연대 미상).

28 - 세도 정치기의 사회 모습

28.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③ 흥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다.
- ④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 ⑤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자네 소식 들었나? 지난달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관아를 습격하고 아전의 집을 불태웠더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도 들었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과 향리들의 횡포에 맞서 유계춘이 주도하였다고 하더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주'라는 지명과 '경상 우병사 백낙신', '유계춘'이라는 인물 등을 통해 주어진 가상 대화는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발생한 진주 농민 봉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철종 대는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기였다(19세기의 세도 정치기*).

*세도 정치기: 정조 사후, 순조-헌종-철종에 이르는 60년 간 소수 가문(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반남 박씨 등 6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를 말한다. 특히 순조, 철종 대의 안동 김씨와 헌종 대의 풍양 조씨의 세도가 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이후 성종이 재위 5년인 986년에 이를 확대하여 의창 설치).
-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 ③ 흥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것은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있었던 흥건적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 흥건적이 침략한 것은 두 차례로 제1차 침입은 고려 공민왕 8년인 1359년에 있었다. 흥건적의 2차 침입 당시 공민왕은 복주(지금의 경북 안동)까지 피란하였다.
- ④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과 같은 '몽골풍'이 유행한 것은 고려 시대 원 간섭기**의 일이다(원에서는 반대로 고려 풍습인 '고려양' 유행)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 병인양요

29.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 ② 왕이 공산성으로 피란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전개 과정에서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답> ③

'전등사는 강화도 정족산성 안에 위치한 사찰로 대웅전, 약사전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찰 내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정족산 사고가 복원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순무천총 양헌수(1816~1888)가 이끄는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1, 이 외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활약(1866.10)).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일어난 병인양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외규장각 도서와 각종 귀중품이 약탈되었다.

오답 해설>

- ① 1875년 9월에 있었던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사건은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다(1876.2.27).
- ② 왕(인조)이 충남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이괄의 난이다(1624, 인조 2).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 2월의 일이다. 상술하자면,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같은 해 2월 16일 장흥 부사 이용태(1854~1922)가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용태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3월 2일에야 고부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신임 군수 박원명을 협박하여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무작정 잡아들이고 집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러 결국 동학 농민군이 제1차 봉기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26쪽 48번 아래 추가 해설>

30 - 임오군란

3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직책의 신하들이 재물을 거두어들여 자기 배만 채우면서 각영(各營)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은 몇 달 동안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훈국(訓局)의 군사가 맨 먼저 난을 일으키고, 각영의 군사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은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민창식을 죽였고 또 중전을 시해하려 하였다. 중전은 장호원으로 피하였다.

- 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③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 ④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정답> ④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직책의 신하들이 재물을 거두어들여 자기 배만 채우면서 각영(各營)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은 몇 달 동안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리하여 훈국(訓局)의 군사가 맨 먼저 난을 일으키고, 각영의 군사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은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민창식을 죽였고 또 중전을 시해하려 하였다. 중전은 장호원으로 피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각영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을 몇 달 동안 주지 않았다'는 점과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민창식', 그리고 '중전(명성 황후)'이라는 인물이 언급된 점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임오군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2.6~7).

임오군란 직후 이를 수습하고자 1882년(고종 19) 8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주된 내용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죄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각 제4관/제6관). 또 공사관 보호의 명분으로 일본 경비병을 상주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제5관). 따라서 임오군란 이후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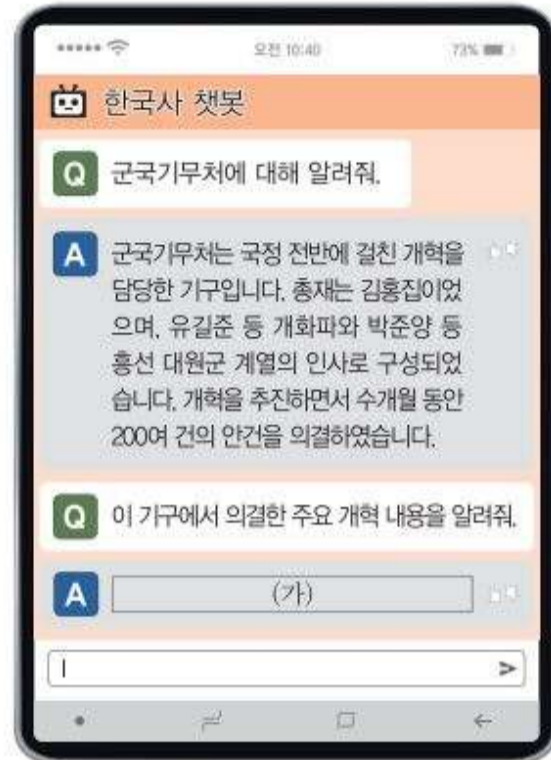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의 일이다(1876.2.27).
- ② 창산 김기수(1832~?)가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직후인 1876년 4월의 일이다(~윤6).
- ③ (서울)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생한 신미양요 때의 일이다.
- 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12사를 둔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31- 제1차 갑오개혁

3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2점]



- ①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습니다.
- ②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③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습니다.
- ④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습니다.
- ⑤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습니다.

정답> ①

한국사 챗봇에서 '군국기무처에 대해 알려줘'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답으로 '군국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담당한 기구입니다. 총재는 김홍집이었으며, 유길준 등 개화파와 박준양 등 흥선 대원군 계열의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개월 동안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기구에서 의결한 주요 개혁 내용을 알려줘'라는 질문이 다시 나와 있다.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이므로(1894.6.25~12.17), 주어진 자료 속 (가)에는 제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공사 노비법을 혁파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6월 28일(양력 7월 30일) 의결된 군국기무처 의안(12개) 중 하나).

오답 해설>

- ②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한 것은 조선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 ③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정하였다(~1897년 8월 16일까지 사용).
- ④ (1895년 2월의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한성 사범 학교 관제(칙령 제79호) 반포]. 참고로 같은 해 5월에는 한성 외국어 학교도 설립되었다.
- ⑤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한 것은 1901년 10월의 일이다(~1904.4).

32 - 독립 협회

32.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들은 나라가 나라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자수(自修)하여 나라 안에 정법(政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이 우리 폐하께 부여해 준 하나의 큰 권한으로서, 이 권한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등은 (가) 을/를 설립하여 독립문을 세우고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며,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확고히 함으로써 억만년 무궁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 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②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정답> ④

'신들은 나라가 나라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자수(自修)하여 나라 안에 정법(政法)을 행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두 가지는 하늘이 우리 폐하께 부여해 준 하나의 큰 권한으로서, 이 권한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등은 (가)을/를 설립하여 독립문을 세우고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며,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확고히 함으로써 억만년 무궁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립과 자수', '독립문' 등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단체'는 고종 33년이자 건양 원년인 1896년 7월에 세워진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9.12). 주어진 자료는 1898년 2월 독립 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서 결사적인 구국 운동을 서약하고 올린 구국 운동 선언 상소문이다(1898.2.21)(국가 자주권 주장).

독립 협회는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898년[고종 35(광무 2)] 10월에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1898.10.29). 이로써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마음을 바꾼 고종의 갑작스런 독립 협회 해산 명령으로 좌절되고 말았다[1898.12.25(민회 금지령)].

오답 해설>

- ①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선 단체는 천도교이다(1906.6).
- ②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렀다.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신민회이다(1907.4~1911.9).
-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3 - 국채 보상 운동

33.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거액의 외채 1,300만 원을 해마다 미루다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룬다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니,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면, 아! 우리 동포는 장차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근래에 신문을 접하니, 영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에 이르기까지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발기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의연금을 내는 자들이 날마다 이른다 하니, 우리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 ①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 ②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거액의 외채 1,300만 원을 해마다 미루다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룬다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니,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면, 아! 우리 동포는 장차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근래에 신문을 접하니, 영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에 이르기까지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발기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의연금을 내는 자들이 날마다 이른다 하니, 우리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2~1908.7).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당시 항일 언론들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국채 보상 운동이 실패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 때문이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것은 한일 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의 일이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민족 운동은 1919년의 3·1 운동이다(1919.4.11).
- ④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민족 운동은 형평 운동이다.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1923.4.24).
- ⑤ 민립 대학 설립을 목표로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 6월 조선 교육회 설립 발기회가 개최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1923년 3월에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시도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의 집요한 방해와 강압으로 실패하여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 제국 대학 외에 단 하나의 민립 또는 사립 대학도 설립되지 않았다.

34 - 기유각서

34.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② 뮐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 ③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 ④ 기유각서가 체결되어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 ⑤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는 조칙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들었네. 그 다음날 일본 군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양위식이 거행되어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께서 퇴위당하신 셈이지'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으로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된 것은 1907년 7월의 일이다(1907.7.20).

대한 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과 감옥 사무의 처리권)을 박탈당한 것은 1909년 7월의 일이다(1909.7.12).

오답 해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4월의 일이다. 강병책으로 신식 군사 연습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탐지한 일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당시 일본 공사 하나 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측 제안을 전달). 그런데 별기군의 급료나 피복 지급 등 모든 대우가 구식 군대보다 월등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왜별기(倭別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 대우는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한 계기가 되었다.
- ② (독일인) 뮐렌도르프(1848~1901)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것은 1882년(고종 19) 12월의 일이다. 뮐렌도르프(한국명 목인덕)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비준은 물론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의 조약 체결에 공헌하는 등 대서양 외교 정책 수립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세관 업무까지 맡는 등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고종의 목인 아래) 조러 밀약을 통해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려다 자신을 조선에 추천한 이흥장에 의해 해고되었다(1885.7).
- ③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가 부임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06년 2월 1일부터 통감부의 업무가 개시되었으나 이토는 한 달 뒤인 3월 2일에야 서울로 부임하였다(그 사이에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통감 업무 대리).
- ⑤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가 결의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10월의 일이다(1898.10.29.).

35 - 물산 장려 운동

35.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회사령 폐지 등이 배경이 되었다.
- ㄴ. 황국 중앙 총상회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 ㄷ.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ㄹ. 대동 상회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광고로 보는 역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로 '이것은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광고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인 기업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전개된 이 운동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이라는 문구가 광고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운동'은 평양에서 고당 조만식(1883~1950) 등의 주도로 처음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0.8).


- ㄱ. 물산 장려 운동은 (허가제)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1920.8). 조선 관세령 폐지도 우리(조선) 민족의 경제적 자립성을 지키려는 물산 장려 운동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1923.4). 관세령 폐지는 일본산 상품의 시장 독점으로 조선 제조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ㄴ.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의가 조직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7월의 일이다(상권 수호 운동). 같은 해 12월에 수구파 정부가 독립 협회를 탄압할 때 함께 해산당하였다.
- ㄷ.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작회(自作會), 토산 애용 부인회가 서울에서 조직된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각 1922.12/1923.2).
- ㄹ. 대동 상회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 대동 상회는 평안도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인천에서 설립한 것으로, 대동 상회사, 평양 상회라고도 부른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36- 의열단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황상규

경상남도 밀양 출생이다. 1918년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김동삼, 김좌진, 안창호 등과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19년 11월 김원봉 등과 (가) 을/를 조직하여 일제 기관의 파괴와 조선 총독 이하의 관리 및 매국노의 암살 등을 꾀하였다.

1920년에 국내로 폭탄을 들여와 의거를 준비하던 중 발각되어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②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③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④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정답> ①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황상규'가 제시되어 있다. '경상남도 밀양 출생이다. 1918년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김동삼, 김좌진, 안창호 등과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919년 11월 김원봉 등과 (가)을/를 조직하여 일제 기관의 파괴와 조선 총독 이하의 관리 및 매국노의 암살 등을 꾀하였다. 1920년에 국내로 폭탄을 들여와 의거를 준비하던 중 발각되어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민 황상규(1890~1931)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대한 독립 선언서[무오 독립 선언서]의 대표자 39인 중 한 사람으로 북로 군정서 조직에 참여하고 의열단 조직도 주도하였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되었다.

의열단은 단재 신채호(1880~1936)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1923.1).

오답 해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1941.11.28). 조소앙(1887~1958)이 기초한 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임시 정부 국무 위원회 명의로 공포).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개 장과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향후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③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단체는 천도교이다(1920년 개벽사 설립, 개벽은 1920년 6월 발행).

④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한 단체는 백범 김구가 조직한 의열 단체인 한인 애국단이다(1931.10).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단체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대한) 독립 의군부이다(1912.9~1913.5).

37- 1920년대의 사회 운동

37.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우리들 민중의 통곡과 복상이 결코 이척[순종]의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민중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비애와 통렬한 애도는 경술년 8월 29일 이래 쌓이고 쌓인 슬픔이다. …… 금일의 통곡·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우리들의 해방 투쟁에 바치자!

(나) 조선 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민족적 중심 단결을 요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민족주의를 표방한 신간회가 발기인의 연명으로 3개 조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

1.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다) 우리 2천만 생명(生靈)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고뇌하는 청년 학생 2백 명이 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 있다. ……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①

(가)에 '우리들 민중의 통곡과 복상이 결코 이척[순종]의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민중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들의 비애와 통렬한 애도는 경술년 8월 29일 이래 쌓이고 쌓인 슬픔이다. …… 금일의 통곡·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우리들의 해방 투쟁에 바치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척의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순종[재위 1907-1910, 제27대(대한 제국 제2대 황제)]의 인산일[국장]을 기해 벌어진 대규모 만세 시위인 6·10 만세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6.6.10). 주어진 자료는 조선 공산당이 작성하여 살포한 격문이다('상(喪)에 복(服)하고 곡(哭)하는 민중에게 격(檄)함').

(나)에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민족적 중심 단결을 요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민족주의를 표방한 신간회가 발기인의 연명으로 3개 조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된 신간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7.2.15)(6·10 만세 운동이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됨).

(다)에는 '우리 2천만 생명(生靈)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뇌하는 청년 학생 2백 명이 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 있다. ……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 '광주 학생의 석방'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30.3). 주어진 자료는 광주 학생들의 항일 운동에 호응하여 총궐기한 목포 상업 학교 학생들이 뿌린 격문이다(1929.11.19).

이상을 발표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38- 일제 강점기 말에 볼 수 있는 모습

38.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②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 ③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 ④ 경성 제국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 ⑤ 서울 진공 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

정답> ③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에 있는 해안 동굴 진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일제는 이와 같은 군사 시설물을 거문도를 비롯한 각지에 구축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일 전쟁 발발 후(1937.7.7) 일제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고(1938.4.1), 시행한 것은 같은 해 5월 5일부터이다(일본 본토는 물론 당시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도 적용).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아동용과 성인용 두 종류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 ②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노동 운동)이 일어났다(1929.1~4).
-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 ⑤ 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된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다(1907.12.6)(정미의병).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이듬해인 1908년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39 - 5·10 총선거

39. (가), (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조 신한공사를 조선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써 창립함. 공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입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10명의 직무를 집행하는 취체역이 관리함.
제4조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한공사에 귀속됨.

(나)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등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해당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 ①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 ④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 ⑤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정답> ④

(가)의 제1조에 '신한공사를 조선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써 창립함. 공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입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10명의 직무를 집행하는 취체역이 관리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 조에는 '.....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한공사에 귀속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나)의 제4조에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내용이, 제12조에는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등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3조에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와 '1. 상환액은 해당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의 일이다(공포된 것은 1950년 3월).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된 것은 1948년 5월의 일이다. 제헌 국회는 2년 임기로,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였다(~1950.5.30).

오답 해설>

- ① 몽양 여운형(1886~1947)의 주도로 1945년 8·15 광복 전해인 1944년 8월 서울(경성)에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이듬해인 1954년 1월에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 절차를 거친 다음 1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1954.11.18).
- 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조선 총독부 제령 제8호로 제정·공포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람(사상범)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의 목적으로 감옥에 계속해서(기간 갱신) 가둘 수 있도록 허용한 악법이다.
- ⑤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4월의 일이다(1959.4.30).

40 -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

40.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 ②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④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⑤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경성에서 조선사회경제사 출판 축하회가 있었습니다. 저자로서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저는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 원시 씨족 사회와 삼국 정립기의 노예제 사회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은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1894~1979)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백남운은 유물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한 사회경제사학자이다. 대표작으로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1937)를 저술하여 일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진단 학회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된 학술 단체이다(1934.5). 실증주의 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진단 학보 발행). 대표적인 인물로 두계 이병도(1896~1989), 한희 이운재(1888~1943), 일석 이희승(1896~1989), 남창 손진태(1900~?), 도남 조운제(1904~1976) 등을 들 수 있다.
- ② (일제에 대항한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20.12).
- ④ 우리말[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것은 조선어 학회이다(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 변경). 1929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조작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 2권이 한글 학회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3권부터는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이 간행되었다.
- ⑤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이다. 조선학 운동은 1934에서 1938년까지 전개되었다(일제 강점기에 속하는 1930년대).

41 - 한국 광복군

41.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2점]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한국 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 중국 국민당 군사 위원회는 조선 의용대를 개편하여 (가)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였다. 제1지대는 총사령에게 직속되어 이(지)청천 장군이 통할한다. …… (가)의 총사령부는 충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⑤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정답> ④

'한국 독립운동을 촉진하고 한국 혁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 중국 국민당 군사 위원회는 조선 의용대를 개편하여 (가)에 편입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지대는 총사령에게 직속되어 이(지)청천 장군이 통할한다. …… (가)의 총사령부는 충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부대'는 백산 지청천(1888~1957)을 총사령관으로 중국의 임시 수도인 충칭에서 조직된 한국 광복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40.9.17).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된 것은 1942년 5월의 일이다.

한국 광복군은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1945년 초부터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는데(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같은 해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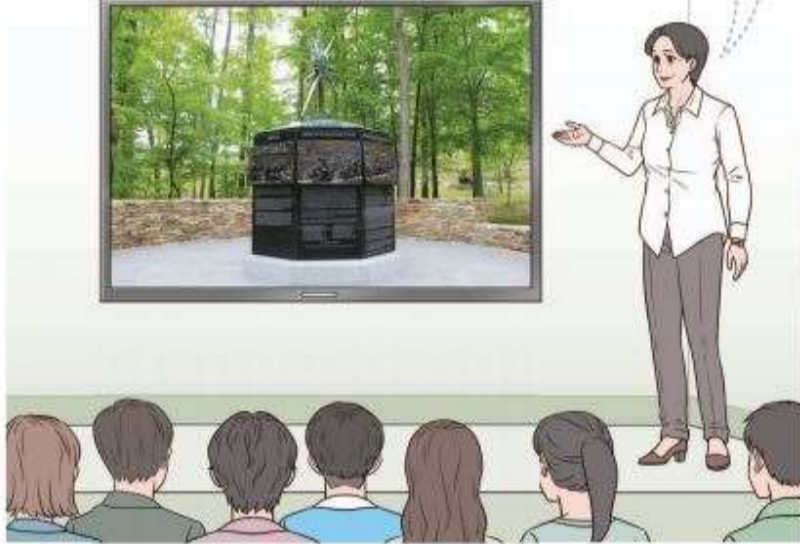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부대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이다. 간도 참변 이후 소만 국경 지대인 밀산(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에 위치한 시)에 집결한 항일 독립군 부대(10개)는 대한 독립 군단을 조직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1920.12). 하지만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브스크]에서 참변을 당하여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자유시 참변, 1921.6.28).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이다. 조선 혁명군은 영릉가에서 중국 (항일)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관동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1932.3)(영릉가 전투)(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 랴오닝성[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1932년 9월과 11월). 쌍성보는 흑룡강성 하얼빈 서남방에 위치한다.
- ⑤ 흥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김좌진 총사령)이다(1920.10). 이들 독립군 연합 부대는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다.

42 - 6·25 전쟁

42. 밑줄 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이 비석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중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세워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 등이 벌인 주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②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되었다.
- ③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④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 ⑤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정답> ④

'이 비석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중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세워진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을 상대로 유엔군 등이 벌인 주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50.6.25~1953.7.27).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한 것은 1950년 11월 하순경의 일이다.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 해병 사단(1만 3천여 명)이 서부 전선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함경남도 장진군의 호수로, 개마고원의 저수지)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리하여 장진호 계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철수하는 약 2주간에 걸친 작전을 전개하였다(1950.11.27.-12.11).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의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까지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②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5.7.29).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 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③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의 일이다(12.16~26). 미국 국무장관 번즈,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 영국 외무장관 베빈 등이 참석하였다. 모스크바 3국[삼국] 외상 회의 결정문이 최종 채택된 것은 영국의 막후 동의를 얻은 12월 28일의 일이다.

<46쪽 48번 아래 추가 해설>

43 - 장면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43.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에 맡겨진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 원흉의 처단은 이미 공소 제기과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① 국민 교육 현장을 읽고 있는 학생
- ② 서울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 ③ 개성공단 착공식을 취재하는 기자
- ④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
- ⑤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의원

정답> ⑤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에 맡겨진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부정 선거 원흉의 처단은 이미 공소 제기과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부(장면 내각*)의 수반[국무총리] 장면(1899~1966)이 민의원에서 한 두 번째 시정 연설이다(1960년 9월 30일)(첫 번째 시정 연설은 8월 27일).

제3차 개헌안에 의해 장면 정부(제2공화국)에서의 국회는 민의원(일종의 하원)과 참의원(일종의 상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1960.8.12~1961.5.16). 따라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 의원이 심의하는 것은 장면 정부 시기의 국회에서 볼 수 있다.

*장면 내각: 허정 과도 정부**의 주도하에 개정된 제3차 개헌(1960.6.15)에 따라 내각 책임제의 정부 형태로 출범하였다. 1960년 8월 12일 출범하여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하였다. '장면 정부' 또는 '제2공화국'으로도 부른다.

**허정 과도 정부: 제1공화국 붕괴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속한 과도 정부이다(제3차 개헌 이룸). 같은 해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오답 해설>

①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현장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12월의 일이다(1968.12.5).

②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③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이르러 개성공단 착공식이 비로소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노무현 정부 시기, 2003.2-2008.2).

<46쪽 48번 아래 추가 해설>

44 - 사사오입 개헌 이후의 사실

44. 밑줄 그은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대한 변호사 협회장의 성명

이번 개헌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찬성표 수가 135이고 재적의원 수가 203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이다. 그러면 재적인 수의 3분의 2는 135.333이니 이 선에 도달하려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 찬성표가 재적인 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정족수 이상 되어야 하거늘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사사오입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 정족수인 3분의 2와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 ②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④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 ⑤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답> ②

'대한 변호사 협회장의 성명'이라는 제목 아래 '이번 개헌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찬성표 수가 135이고 재적 의원 수가 203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이다. 그러면 재적인 수의 3분의 2는 135.333이니 이 선에 도달하려면 동일한 표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찬성표가 재적인 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정족수 이상 되어야 하거늘 0.333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것을 사사오입이라는 구실로 떼어버리고 정족수인 3분의 2와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차 개헌, 1954년 11월 29일에 공포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을 가리킨다(같은 해 11월 27일에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뒤집었다). 사사오입 개헌의 핵심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진보당의 당수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처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7월의 일이다. 참고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답 해설>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19~10.27). 당시 여수에 주둔 중이던 조선 국방 경비대 14연대 소속 장병들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이다. 반란과 그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 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 제주)가 조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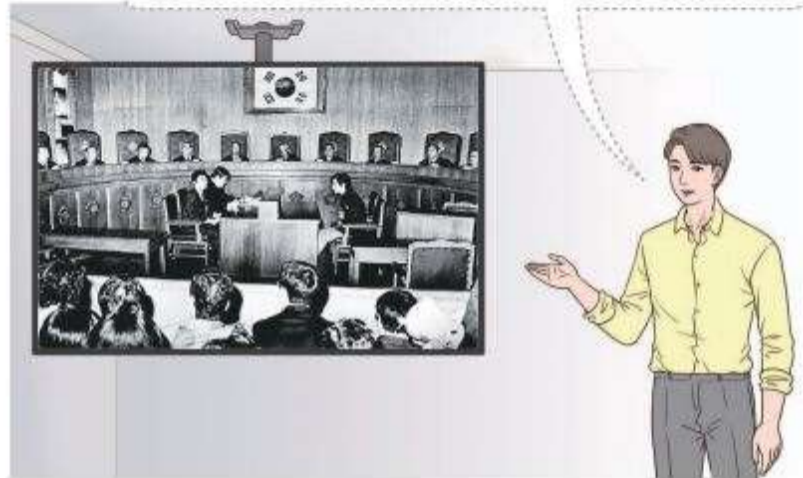
④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1949년 4월의 일이다(1949년 4월 말~8월 중순).

⑤ 몽양 여운형(1886~1947)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1947.10.6). 같은 해 10월 7일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45 - 유신 체제기의 사실

45. (가)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사진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가) 헌법에 의거하여 발동한 긴급조치 제4호 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벌한 것입니다. 당시 사형을 당한 8명은 2007년에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①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 ②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국민 보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 ⑤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정답> ③

'사진은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판 당시의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사건은 (가) 헌법에 의거하여 발동한 긴급 조치 제 4호 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벌한 것입니다. 당시 사형을 당한 8명은 2007년에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줄여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 그중 유신 헌법이 적용된 유신 체제기인 1974년 5월의 일이다(제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발생)(유신 체제기, 여러 시기가 제시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변화로 본다면 1972.12~1980.

10). 긴급 조치는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 이른바 '유신 헌법'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재야 단체 및 학생들의 운동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긴급 조치 1, 2호를 공포하면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였고, 이어 같은 해 4월 3일,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조치 제4호를 발동하였다.

장준하(1918~1975)를 비롯한 함석헌,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 재야 민주 인사들의 주도로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73년 12월의 일이다(1973.12.24~1974.1.8). 참고로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2월에 치러진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1985.2.12)에서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에 의해 같은해 12월부터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도 있다.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이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정하여 내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총 23명을 기소하였는데, 1974년 9월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 공판에서 서도원, 김용원, 이수병,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하재완, 도예종 8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듬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4월 9일 새벽에 이들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오답 해설>

① 김주열(1943~1960)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것은 1960년 3월 15일의 일이다. 경남 마산에서 벌어졌던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 참석했다 최루탄을 눈에 맞고 사망하였다. 같은 해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4·19 혁명이 일어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② (경기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6월의 일이다(1986.6.6~7). 같은 해 5월 3일에 있었던 사건(5·3 인천 사태**)의 관련자 색출을 명목으로 연행되어 온 학생 운동가 권인숙(1964~)을 문귀동 경장이 진술을 강요하며 성고문을 자행하였다.
 **5·3 인천 사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열린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 대회가 재야 및 학생 운동권의 격렬한 시위로 무산된 사건이다.
 ④ 국민 보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된 것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초기의 일이다(국민 보도 연맹 사건***).
 ***국민 보도 연맹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한 연맹원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다. 1950년 6월 말에서 9월경까지 전국에 걸쳐 수만 명의 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 국민 보도 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교화)하여 전향시키기 위해 1949년 4월 조직된 관련 단체로 가입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강제) 가입하였다.
 ⑤ (학원 자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도중 (명지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강경대(1972~1991)가 백골단[사복을 한 시위 진압 경찰 부대]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4월의 일이다(1991.4.26).

<6번 오답 해설>

④ 익산 왕궁리 오층 석탑 사리장엄구 안에서 발견된 청동[금동] 여래 입상이다(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 사리장엄구는 익산 왕궁리 오층 석탑(국보 제289호)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제작 연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통일 신라 시대인 8~9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⑤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불상으로, 발해의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동경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9번 오답 해설>

③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한 국가는 고려이다. 국방 회의 기구였던 도병마사는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국가 최고 회의 기구로까지 발전하였다(1279, 충렬왕 5). 도평의사사를 일명 도당(都堂)이라고 하였다.
 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는 신라이다(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 6두품은 6관등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제한 없이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다.

<16번 오답 해설>

③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이다. 세 마리의 토끼가 떠받치고 있는 능화반(菱花盤) 위에 양화연화판(仰花蓮花瓣)으로 겹겹이 싸여진 화사(火舍:점등하는 부분)가 놓인 형식의 향로이다(국보 제95호). 상감 청자의 일종으로 공예적인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안정감 있는 뛰어난 청자 향로이다.
 ④ 고려의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 송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형 석탑으로, 국보 제48-1호로 지정되었다.
 ⑤ 고려의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다. 고려 시대 청동 정병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려) 자기가 아니라 은입사 기술이 적용된 금속 공예품이다.
 **정병(淨瓶): 본래 깨끗한 물을 담은 수병[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차츰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17번 오답 해설>

③ 복신(?~663)과 도침(?~661)이 의자왕의 다섯째 왕자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 지원과 함께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 것은 태종 무열왕[김춘추] 7년인 660년 10월의 일이다(부여풍이 일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6.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④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 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①

'사진으로 보는 (가) 정부'라는 제목 아래 경부 고속 도로 개통과 포항 제철소 1기 준공이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7월의 일이다(1970.7.7, 착공한 것은 1968년 2월 1일). 또 포항 제철소 1기가 준공된 것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7월의 일이다(이른바 '7·3 준공'). 참고로 포항 제철소 (1기) 착공식이 있었던 것은 1970년 4월이다. 포항 제철소 1기 사업은 경부 고속 국도 공사 규모의 3배에 달하였다. '제철보국'이라는 사명감으로 착공하여 1973년 7월 3일 연산 103만톤 규모의 종합 제철 공장을 준공하였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의 일이다(~1976).

오답 해설>

- ② 미국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④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지원금을 조기 상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8월의 일이다(2001.8.23). 우리나라가 (파산을 막기 위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의 일이다(1997.11.21)('IMF 구제 금융 사태')(같은 해 12월 3일에 IMF와 양해 각서 체결).
- 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12월의 일이다(1986.12.31) (시행은 1988.1).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1월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47 - 각 시대별 군사 조직

[47~4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여덟째는 적금서당이다. 왕 6년에 보덕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다. 금장의 색은 적흑이다. 아홉째는 청금서당이다. …… 금장의 색은 청백이다.
- (나) 응양군, 1령(領)으로 군에는 정3품의 상장군 1인과 종3품의 대장군 1인을 두었으며, …… 정8품의 산원 3인, 정9품의 위 20인, 대정은 40인을 두었다.
- (다) 무위영, 절목계하본(節目啓下本)에 의하여 낭청 1명을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문신으로 추천하여 군색종사관으로 칭하고 …… 중군은 포장·장어영 중군을 거친 자로 추천하여 금군별장이라 칭한다.
- (라) 별대와 정초군의 군병을 합하여 한 영(營)의 제도를 만들어 본영은 금위영이라 칭하고, 군병은 금위별대라 칭한다.

47. (가)~(라) 군사 조직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②

(가)에 '여덟째는 적금서당이다. 왕 6년에 보덕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다. 금장의 색은 적흑이다. 아홉째는 청금서당이다. …… 금장의 색은 청백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통일 신라 초에 정비된 신라의 중앙 군사 제도인 9서당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문왕 7년인 687년에 정비되었으며, 신라인을 비롯하여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중에서 뽑아 조직하였다.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옷깃의 색에 따라 부대 명칭을 구별하였다.

(나)에는 '응양군, 1령(領)으로 군에는 정3품의 상장군 1인과 종3품의 대장군 1인을 두었으며, …… 정8품의 산원 3인, 정9품의 위 20인, 대정은 40인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응양군은 용호군과 함께 고려 국왕의 친위 부대로, 고려의 중앙군 중 하나이다(2군 6위). 응양군은 1령, 용호군은 2령이었는데, 한 령은 천 명으로 구성되었다(2군 6위 총 44령). 6위는 보통 성종 14년인 995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며, 상위의 부대인 2군은 현종 대, 정확하게는 거란군의 침략을 당한 직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응양군과 용호군의 칭호가 현종 8년(1017)과 현종 9년(1018)에 처음으로 언급).

(다)에는 '무위영, 절목계하본(節目啓下本)에 의하여 낭청 1명을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문신으로 추천하여 군색종사관으로 칭하고 …… 중군은 포장·장어영 중군을 거친 자로 추천하여 금군별장이라 칭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한 것은 조선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라)에는 '별대와 정초군의 군병을 합하여 한 영(營)의 제도를 만들어 본영은 금위영이라 칭하고, 군병은 금위별대라 칭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위영을 창설한 것은 조선 숙종 8년인 1682년의 일이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인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상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라)-(다)'가 된다.

48 - 통일 신라 신문왕의 업적

48.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②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 ③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정답> ①

<주어진 자료 해설은 47번 참조>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681)이 반란을 도모하다 진압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김흠돌의 난)[신문왕(재위 681-692), 제31대].

오답 해설>

②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한 왕은 신라의 법흥왕(재위 514-540, 제23대)이다(각 517(법흥왕 4)/531(법흥왕 18)).

③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한 것은 조선 효종(재위 1649-1659, 제17대)이다.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술)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술) 두 차례 나선 정벌이 단행되었다.

④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왕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 제1대)이다(936, 태조 19).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한 왕은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 제31대)이다(1356, 공민왕 5).

<17번 오답 해설>

오답 해설>

① 고려의 김락(?~927)과 신승겸 장군(?~927)이 고려와 후백제 간에 벌어진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927.9). 공산은 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로, 이때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대파하였다.

② (재상이자 문신인) 최승로(927~989)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고려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④ 강감찬(948~1031) 거란에 대비하여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한 것은 고려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의 일이다. 현종 즉위년인 1009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현종 20년인 1029에 완공하였다.

⑤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명종 9년인 1179년의 일이다. 경대승(1154~1183, 집권 1179-1183)은 일종의 호위 기구인 도방(都房)을 두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나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였다.

<23번 오답 해설>

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 이후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 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문무 합의 기구). 비국(備局), 묘당(廟堂), 주사(籌司)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초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49 - 5·18 민주화 운동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곳은 옛 전남도청 본관으로 (가)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항쟁한 장소입니다. 정부는 본관을 포함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여 (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되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①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 ④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답> ⑤

'이곳은 옛 전남도청 본관으로 (가)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항쟁한 장소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부는 본관을 포함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여 (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되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80년 5월 전남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80.5.18-27).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관련 기록물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①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야당) 인사들이 발표하였으며,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②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연세대 재학생 이한열(1966~1987)이 시위 중 최루탄에 피격당하였으며(1987.6.9), 입원 중 같은 해 7월 5일 사망하였다. 6월 민주 항쟁을 촉진시킨 사건이었다.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외쳐진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④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고, 곧 허정(1896~1988)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1960.4.27.~6.15).

<29번 오답 해설>

⑤ 천주교인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된 사건은 순조 원년인 1801년 2월(음력 1월)에 발생한 신유박해이다. 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다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황사영 백서 사건).* 그러다 결국 같은 해 9월에 체포되었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2번 오답 해설>

⑤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이다.

*남북 협상: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 [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뒤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는데,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 [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설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르고 있다.

<43번 오답 해설>

④ (전남)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11월의 일이다(~1978.5). 일명 '함평 고구마 사건'으로, 함평군 농민들이 농협과 정부 당국을 상대로 고구마 전량 수매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투쟁한 사건이다.

50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50.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 ②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 ③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④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하였다.
- 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정답> ⑤

'오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난달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단행된 인사 조치입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인 1993년 3월의 일이다(김영삼 대통령이 권영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숙청 주도). 이때 하나회 출신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 보직 해임되고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되었다. 이후 4월에 2~4차 숙청이 이루어졌다(주어진 자료는 4월 2일 2차 숙청 때의 일, 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형선 특전사령관 경질). 같은 해 5월에는 1979년 12·12에 연관된 장성들이 전역 조치되었다(이후 1994년 10월까지 진행)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에 '침탑' 철거가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6년 11월 13일에 해체가 완료되었다(마지막 발파)(김영삼 정부 시기, 1993.2-1998.2).

오답 해설>

- ①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4년 6월의 일이다.
- ②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9월의 일이다(한·소 수교). 참고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것도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2년 8월이다.
- ③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 ④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0월의 일이다. 참고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전해인 1999년 9월의 일이다(김대중 정부 시기).

- 이 상 -